

분유업계의 새로운 활력, 액상분유시장

오사카지사

일본 젊은 부모의 액상분유 선호세

- 액상분유란 물에 희석돼 용기에 담겨있는 분유로, 물에 녹일 필요 없이 아기에게 바로 먹일 수 있는 제품이다. 이용의 편리성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차원에서도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많다.
- 일본에 액상분유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토지진이 발생했을 때 핀란드에서 액상분유를 구호물자로 지원하면서부터이다. 액상분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먹일 수 있어 재해용 비축물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액상분유 제조·판매를 위한 절차 진행 중

- 현재 영유아 조제분유는 일본 후생노동관 소관 '우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의와 성분규격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아용 액상분유에 대한 성분규격 및 위생기준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일본기업은 액상분유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했다.

- 그러나 올해 3월 12일 후생노동성 회의에서 액상분유에 대한 법령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유아용 액상분유를 조제액상유의 명칭으로 '생유나 우유 등을 원료로 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더해 액상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조제분유와 동등한 영양분을 더해 상온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 120도에서 4분간 가열살균 등의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이후 식품안전위원회의 건강영향평가와 의견공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후생노동성은 2018년 여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더불어 지난 5월 15일 일본 소비자청은 액상분유를 '특별용도식품'으로 허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특별용도식품이란 유아, 임산부, 환자 등 의학·영양학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발육과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특별용도의 표시가 허용된 식품을 의미한다. 유제품 제조 회사가 소비자청이 마련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게 된다면, 제조사는 해당제품에 유아 발육에 적합하다는 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 용도 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허가 품목 표시 내용 예시



제품명: 메이지 호호에미 큐브
 제조사: (주)메이지
 조제분유 허가 표시내용:
 모유가 부족한 아기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일: 2012.6.21.
 허가번호: 제24003호



제품명: 와코도 레벤스 밀크 하이하이
 제조사: 아사히그룹식품(주)
 조제분유 허가 표시내용:
 아기에게 엄마의 모유가 가장 좋습니다.
 와코도 레벤스 밀크 하이하이는
 모유가 부족하거나 줄 수 없을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일: 2016.3.24.
 허가번호: 제27006호

일본 유업회사의 과제 및 향후동향

- 법안이 개정되면 일본의 유제품회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액상분유는 영양성분 산화 등 품질변화 없이 장기보존이 가능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새로운 생산라인 투자로 인한 경비경감 역시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액상분유의 제조와 판매를 시작한 만큼, 일본 분유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액상분유 제품



(왼쪽부터)
 일동후디스의 '트루맘',
 LG생활건강의 '베비엔nis',
 핀란드 Valio사의 'Tuuti'

출처 : 아사히신문(2018. 5. 16), 니테레 뉴스24(2018. 3. 19)
 일본NHK뉴스(2018. 3. 13), 일본 마이니치신문(2018. 3. 12)
 일본소비자청 특별 용도 식품 허가 등에 관한 위원회 (www.caa.go.jp)
 www.foodis.com, www.lgcare.com, www.valio.fi